

신약외경과 알레고리

-도마행전 '진주의 찬가'의 알레고리화와 이데올로기 고찰

양재훈*

들어가는 말

고전적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의 개념을 종이 위에 문자로 적힌 글이라는 것으로 한정하였다면, 현대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의 개념을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인 사교의 산물로 보아 그 개념을 보다 확장하였다. 이것을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자에 의한 그 텍스트의 탄생부터 독자에 의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²⁾가 개입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고전적 개념의 텍스트 즉, 어떤 문서가 저술되고 읽혀지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어떤 문서가 탄생할 때 이미 저자의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그 문서가 독자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질 때 그 독자 역시 그 문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 협성대학교, 신약학

- 1) 양재훈, "소통과 융합 시대의 성서학과 문화," 「Canon&Culture」 13 (2013), 63-102를 보라.
- 2) 여기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라고 번역될 수는 없다. '이념'이라는 용어는 자못 그 의미의 범위가 한정적이며(마치 정치적-사상적 용어처럼),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데올로기(ideology)라고 지칭한다. 이데올로기의 개념에 대하여는 T. Eagleton, *Id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NY: Verso, 1991), 28-31를 보라.

즉,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재단하여 읽는다.

저자와 독자는 이데올로기라는 면에 있어서 모두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다. 즉, 저자가 어떤 문서를 저술할 때에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그 텍스트에 주입하는데, 그 저자가 그러한 가치관을 갖기까지 나름대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이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저자는 자기 주변 세계의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소비자가 된다. 독자 역시 텍스트에 대하여 주체적, 능동적(not passive)인 존재로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의미의 생산자가 되는데, 그가 그러한 해석 행위를 하는 데에는 해석의 틀이 존재하며, 그 해석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도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생산 하거나(예를 들면 저술) 혹은 소비 하는 행위는(예를 들면 독서)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로 뒤엉켜있으며, 극단적인 포스트모던 해석(예를 들면 전기[前期] 스탠리 피쉬[S. Fish]의 독자반응 비평이나 의미의 차연[differance]을 말하는 해체주의)에 대하여 과연 해석이라는 행위가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비판도 일어났었다.³⁾ 해석이라는 행위의 역할이 저자/생산자의 코드화(encoding) 행위에 대한 상대적 행위 즉, 탈코드화(decoding)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도 아니다.⁴⁾ 비평가나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3) 1998년 가을 캐나다에서 나는 제인 톰킨스(J. Tompkins)와 더불어 독자반응비평의 창시자인 스탠리 피쉬와 이러한 문제를 두고 토론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 공동체(interpretative community)라는 한층 완화된 독자반응비평의 개념으로서 이 해석학의 딜레마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말했다. 후기 스탠리 피쉬의 이러한 입장은 볼프강 이저(W. Iser)의 편집 쪽으로 좀 더 다가선 모양새이다.

4) 예를 들면 E.D. Hirsch의 신데렐라의 오류(Cinderella Fallacy)에 대한 고민이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하는 재미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도 있고 유리 구두도 있는데, 문제는 신비평주의가 지향하는 바, 텍스트의 원래 의미(저자의 의도, 혹은 encoding) 발견에 대한 회의적 입장대로 한다면 즉, 그 진짜 신데렐라를 판별해낼 도구가 되는 유리구두가 매번 바뀐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데렐라를 찾아내겠는가라는 문제이다(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당위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태도나 정반대로 극단적 비판의 태도 모두 각자의 딜레마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그 의도에 대한 발견 가능성 논란과는 상관없이 일단 저자가 생산의 행위를 할 때에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었고, 어쨌든지 독자들은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의미의 발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발화자(發話者)와 청자(聽者) 사이에는 비록 오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생산자(encoder)의 의미를 풀어내는(decoding) 소통과 대화가 이들 사이에서 탄력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의 경험적 현실은 해석학이 존재해야 하는, 혹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고 있다.

텍스트의 의미 생산자가 의미를 생산해낼 때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는 것과, 의미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encode) 의미를 비평/해석할 수 있다는 것(decode)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비평할 때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그 의미 생산에 있어서 작동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알레고리라는 것이 그 인코딩의 과정에서 특히 이데올로기의 노골적인 간섭 행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약외경 가운데 도마행전(The Acts of Thomas)에 나오는 '진주의 찬가'(Hymn of the Pearl)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래 도마행전과 진주의 찬가를 다루는 부분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진주의 찬가는 도마행전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편 이야기로서, 외경행전 문서들 중에서 가장 알레고리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진주의 찬가는 이 논문

Press, 1967], 46). 히르쉬가 견지한 텍스트의 원래적/저자적 의미 발견 가능성에 대한 지지 입장은 신비평(New Criticism)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것이다. 신비평의 근원은 워셋(W. K. Wimsatt)과 비어즐리(Monroe Beardsley)의 "의도의 오류"(The Intentional Fallacy, 1946), "감정의 오류"(The Affective Fallacy, 1949)와 같은 맥에 있는 것이다(W.K. Wimsatt, *Verbal Icon* [KY: Univ. of Kentucky Press, 1954], 3-39). 이와 같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해석학의 기능인가라는 질문(encoding과 decoding),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비평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에서 살펴볼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도마행전과 그 안에 삽입된 진주의 찬가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또렷한 색채로 보여주기에 이데올로기와 알레고리의 매카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의 예시로서 우리는 진주의 찬가를 선택하여 살펴볼 것이다.

신약외경이 도마복음서를 제외하고는 한국 신약학계에서는 그다지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1) 알레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략히 논하고 (2) 도마행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후 (3) 도마행전에 나오는 '진주의 찬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알레고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 찬가를 논하게 될 것이다.

1.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 알레고리화

앞서 발간된 호에 이어서 이번 호 「Canon&Culture」가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성서학적인 고찰을 하고 있기에 이미 알레고리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개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알레고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알레고리의 개념이나 용례에 대하여는 김동혁,⁵⁾ 임진수가⁶⁾ 잘 정리해 놓았으며, 찰람푸니,⁷⁾ 김동혁, 임진수, 조재천⁸⁾이 각각 오리겐과 에스겔, 예수의 비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경우를 통해서 각각 알레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니 이들의 글들을 보면 알레고리의

5)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겐에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1 (2014), 31-50, 특히 31-36.

6) 임진수, "약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해석의 두 관점(막 12:1-12) - 알레고리와 사회적 상황," 「Canon&Culture」 8:1 (2014), 51-83, 특히 51-55.

7) 에카테리니 찰람푸니,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 문자적 해석에서 영적 해석으로," 「Canon&Culture」 8:1 (2014), 5-30.

8) 조재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성경 주해 저술들과 알레고리의 성격," 「Canon&Culture」 8:1 (2014), 85-108.

정의와 기능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알레고리와 비유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과 논의들이 J. 예레미아스,⁹⁾ C. H. 다드,¹⁰⁾ R. 스타인¹¹⁾, J. 도나휴¹²⁾ 등에 의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알레고리의 정의나 비유의 개괄적 개념 정의를 재론하기 보다는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 혹은 알레고리화 작업이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잠시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비유의 개념을 논할 때에 직유(simile), 은유(metaphor), 유형론(typology) 등을 언급한다. 이러한 소개는 알레고리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아돌프 율리허(A. Julicher)에 기인하는데,¹³⁾ 그는 알레고리를 비유와 분리함으로써 어떤 비유를 읽을 때에 그것을 일부 교부들이 했던 것처럼 세부적, 주관적 의미를 통해서가 아닌 그 비유의 전체적 틀에서 거시적으로 볼 것을 주장했다.¹⁴⁾ 다드나 예레미아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의 비유가 전해지던 당시의 삶의 배경들을 비유를 이해할 때에 개입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비유와 알레고리의 관계에 있어서 비유와 알레고리를 분리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마치 알레고리가 비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유형(category)인 것 같은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연유에서 알레고리를 논하는 이들은 보통 존 번연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을 예로 들어 알레고리라는 것과 비유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장소들의 이름부터 크리스찬, 허영, 위선, 자비, 곤고의 산, 절망이라는 거인 등 매우 직설적, 노골적이기 때문에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

9) 요아킴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9-110, 특히 8장을 보라.

10) C. 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London: Collins, 1971).

11) 로버트 스타인, 『예수님의 비유 - 해석원리와 적용』,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71-125를 보라.

12) J. R. Donahue, S. J., *The Gospel in Parable* (MN: Fortress Press, 1988), 1-27.

13) A. Julicher, *Die Gleichnissreden Jes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14) 로버트 스타인, 『예수님의 비유』, 92-93.

(눅 15:11-32)와 변연의 천로역정이 완전히 다른 장르라고 즉, 탕자의 비유는 비유라는 장르에, 천로역정은 알레고리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장르와 별개 혹은 대비되는 장르로서 알레고리라는 장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유(이 안에 포함되는 직유, 은유, 유형론 등 모두)는 저자/화자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점을 말하기 보다는 다른 것을 나란히 빗대어 말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넘어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¹⁵⁾ 비유는 파라볼레(para+bal|w)이고 알레고리는 알로스+아고레오(al|oj + agorew)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란히 던져서 말하든(parabol|h), 다른 것을 가지고 돌려서 말하든(al|legorew) 결국 어떤 요지를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빗대서 전달한다는 거시적 차원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이 둘은 같다. 굳이 비유와 알레고리를 구분한다면, 전자에 비해 후자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개입시키고 또한 이데올로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 따라서 그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해석되는 의미의 가능성의 폭이 전자에 비해 후자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정도이다.¹⁶⁾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알레고리는 비유와 비슷하지만 이에 대비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장르가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문학적 장르라고 보기도 어렵다.¹⁷⁾

혹자는 알레고리가 독립된(혹은 비유라는 장르와 유사한) 장르가 아니라 일종의 사유의 방식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¹⁸⁾ 이는 어쩌면 알레고

15) 이것이 은폐를 위한 것인지 혹은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막 4:12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로버트 스타인, 『예수님의 비유』, 39-58을 보라.

16) J. W. Sider, *Interpreting the Parables: A Hermeneutical Guide to Their Meaning* (Zondervan, 1995), 35. 알레고리와 비유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ider의 책 29-48을 보라.

17) 스노드그라스(K.R. Snodgrass)는 이 점을 분명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14-17.

리라는 것의 성격을 더 잘 간파한 관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나는 해석학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텍스트에 대한 생산의 활동(저술)이든 소비의 활동(독서/해석/비평)이든 상관없이, 또한 그것이 어떤 장르나 유형의 생산-소비 활동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는 항상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 흔한 표현으로 하자면,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없다.”¹⁹⁾ 이것은 비유든 알레고리든 상관없이 없으며, 다만 알레고리가 좀 더 노골적이고 주관적이며,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의미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이처럼 비유와 알레고리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알레고리라는 표현보다는 알레고리적(allegorical) 혹은 알레고리화(allegorize)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오리젠이나 어거스틴 등의 알레고리적 작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하여 이들은 해석을 했고 그 과정에 이들의 신학이나 세계관 즉, 이데올로기가 간섭하였다. 따라서 이 교부들의 작업을 가리켜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성경에서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 작업의 예는 마가복음의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막 4:14-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밭의 비유(막 4:3-8)에 대한 초대교회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작업 결과물이다.

알레고리화 하는 작업 역시 알레고리적 해석 작업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예는 예레미야스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열 처녀의 비유(마 25:1-13)는 초대교회가 재림의 지연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서 신랑을 예수로, 신부를 교회로 알레고리화 한 작업의 결과로 제시된다.²⁰⁾ 예수께서 어떤 의미나 의도로 말씀하신(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것을 초기 독자 청중인 마태 혹은 마태의 공동체가 자신(들)이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18) Ibid., 16을 보라.

19) Helen Steiner Rice, “How Great the Yield from a Fertile Field,” V. Ruelhmann, ed., *The Poems and Prayers of Helen Steiner Rice* (Grand Rapids: Baker, 2003), 134.

20) 예레미야스, 『예수의 비유』, 47-50.

위한 목적이나 세계관을 즉, 이데올로기를 주어진 원천 텍스트(광의적 개념의)에 대한 인식/해석에 개입시켜 그것을 알레고리화 하였고, 그 결과물로 '마태복음 안에서' 이 비유가 존재한 것이다.²¹⁾ 결국 비유를 포함한 모든 광의적 개념의 텍스트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 모두에서 이데올로기의 간섭을 받으며, 비유 텍스트의 경우 종종 알레고리화 작업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2. 신약외경 도마행전의 '진주의 찬가'와 알레고리화

이제 우리는 신약외경 가운데 도마행전(Acts of Thomas)에 포함된 소위 '진주의 찬가(The Hymn of the Pearl)라고 불리는 작품을 가지고 알레고리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마행전과 '진주의 찬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 것이다. '진주의 찬가'를 담고 있는 도마행전은 요한행전, 베드로행전, 안드레행전, 바울과 데클라 행전 등과 더불어 5대 신약외경에 속하는 작품이다. 시리아의 에프렘(Ephrem, 306-373 CE)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셋째 편지에 대한 주석에서 바르다이산(Bardaisan, 154-222 CE)²²⁾의 추종자들이 도마행전을 썼다고 기록하지만,²³⁾ 실제 저술자의 정체는 불분명하다.²⁴⁾ 일반적으로 도마행전은 3세기 초반에²⁵⁾ 동시리아의 에뎃사에서

21) 에레미아스는 알레고리화 작업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들로 재림의 지연, 교회의 선교, 교회의 운영 등과 같은 초기 공동체의 상황을 제시한다. Ibid., 45-84를 보라.

22) 드라이버스는 도마행전이 91장에서 바르다이산의 "Book of the Laws of the Countires"의 인용이 있다고 하면서 이 문서가 바르다이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H. J. W. Drijvers, "The Acts of Thomas," W. Schneemelcher, ed., *New Testament Apocrypha* Vol. 2, R. McL. Wilson, trans. (KY: W/JKP, 1992), 322-411(336).

23) 송혜경, 『신약외경 하권』 (경기: 한남성서연구소, 2011), 203.

24) 분디(D. Bundy)는 에프렘이 썼다고 믿어지는(authentic) 다른 저술물들에서 에프렘이 내리는 바르다이산에 대한 이해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명하면서 제 3 고린도 서신에 대한 주석이 에프렘의 저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D.

시리아어로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되지만,²⁶⁾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²⁷⁾

도마행전은 시리아어와 헬라어 외에도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콕틱어, 이디오피아어, 아라비아어, 슬라브어, 조지아어로 된 사본들이 있으며, 이들 사본들은 후대의 것이고 내용도 짧아서 큰 비중을 갖지는 못한다.²⁸⁾ 도마행전은 총 13개의 막(1-158장)과 순교록(159-17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인 1-61장은 북인도를, 후반부 62-171장은 남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전반부>

1막(1-16): 제비뽑기를 통해 인도를 배정받고 가기를 주저하는 유다 도마를 예수께서 압마네스라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서 강제로 가게 하신다. 안드라폴리스에 도착한 도마는 신혼부부에게 성적 금욕을 가르친다. 혼인의 노래.

2막(17-29): 군다포로스 왕으로부터 왕궁 건축 일을 맡은 도마는 건축

Bundy, "The Pseudo-Ephremian Commentary on Third Corinthians: A Study in Exegesis and Anti-Bardaisanite Polemic," G.J. Reinink and A.C. Klugkist, eds., *After Bardaisan: Studies on Continuity and Change in Syriac Christianity in Honour of Professor Han J. W. Drijvers* (Louvain: Peeters, 1999), 51-63 (52).

- 25) 송혜경은 에벡사에서 로마식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서기 200년 경 부터이고, 도마행전의 등장인물들이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점(테르시아, 마르키아), 바르다이산이 인도에 대한 책을 저술한 시점(218-222 CE)과 도마행전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는 점, 오리게네스가 도마행전을 알고 있었다는 유세비우스의 증언(교회사 3.1) 등을 종합하여서 도마행전의 저술 연대를 220-230 CE로 제안한다. 송혜경, 『신약외경 하권』, 179-180.
- 26) Drijvers, "Acts of Thomas," 323; Bremmer, "The Acts of Thomas: Plae, Date, Women," J. N. Bremmer, ed., *The Apocryphal Acts of Thomas* (Louvain: Peeters, 2001), 74-90 (76).
- 27) 클린은 보다 폭을 넓혀서 시리아어와 헬라어 이중 언어(bilingual) 지역의 동방교회에서 기인한 것으로 헬라어와 시리아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원래인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A. F. J. Klijn, *The Acts of Thomas: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y* (Leiden: Brill, 2003), 3, 15.
- 28) Klijn, *Acts of Thomas*, 4.

비를 자선사업에 써버리고 노한 왕이 그를 가둔다. 왕의 형제 갓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천국에 지어진 왕의 궁전을 보고 다시 살아나서 왕에게 사실을 말해준다.

3막(30-38): 뱀이 젊은이를 죽이고, 뱀은 도마에게 인류의 타락 역사를 설명해준다. 도마는 결국 뱀을 물리치고 젊은이를 다시 살려낸다.

4막(39-41): 새끼 나귀가 도마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그를 태우고 도시에 간다.

5막(42-50): 귀신이 들려서 성적으로 유린당한 여인에게서 도마가 귀신을 쫓아준다.

6막(51-61): 성적 타락 문제로 젊은 남녀가 결국 죄를 짓고 살인을 범한다. 도마는 이들을 꾸짖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면서 성적 정결의 중요성을 말한다. 여인은 다시 살아난 후에 지옥에 가서 성적 문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고통을 본 것에 대해 말해준다.

< 후반부 >

7막(62-67): 시포르 장군의 아내와 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옷을 벗기고 유린당한다.

8막(68-81): 도마는 시포르 장군의 아내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도마의 명령을 받은 나귀가 사람들에게 간음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고 사라진다.

9막(82-118): 카리시우스의 아내 믹도니아가 도마의 가르침을 받고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하자 카리시우스가 화가 나서 도마를 옥에 가두고 믹도니아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한다. 진주의 찬가.

10막(119-133): 믹도니아, 시포르 장군의 가족이 순결한 삶을 서약하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한다.

11막(134-138): 미스다이오스 왕의 왕비 테르시아가 믹도니아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다가 도리어 자신도 믹도니아와 같이 된다. 왕과 카리시우스는 도마를 박해한다.

12막(139-140): 왕자 우자네스가 도마의 가르침을 듣고 그에게 마음이 돌아선다. 왕은 도마를 박해하지만 그는 기적으로 보호를 받고 감옥에서 기도와 설교를 한다.

13막(150-158): 우자네스도 도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도마는 감옥에서 우자네스 부부, 테르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도마의 순교록(159-171): 왕의 심문을 받고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한다.
 결국 왕도 기적을 체험한 후 신자가 된다.

소위 '진주의 찬가'(Hymn of the Pearl)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 9막, 108-113장에 배치되어 있다. 도마행전 사본들 가운데 진주의 찬가가 들어있는 것은 10세기 시리아 사본 1개(BM Add, 14645)와 11세기 헬라이어 사본 1개(B 35) 등 2개 밖에 없다.²⁹⁾ 학자들은 진주의 찬가가 도마행전과 분리되었다가 이 둘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진주의 찬가가 먼저인지³⁰⁾ 도마행전이 먼저인지³¹⁾ 의견이 분분하다. 마니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니교가 도마행전을 애용했기 때문에 도마행전을 마니교 작품으로 보면서,³²⁾ 적어도 진주의 찬가만이라도 마니교에서 기원을 찾는 의견도 있지만³³⁾ 확신할 수는 없다.

진주의 찬가는 도마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자 도마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한 후에 부르는 찬가이다.³⁴⁾ 이 노래는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9) Drijvers, "The Acts of Thomas," 330; G.P. Luttikhuisen, "The Hymn of Jude Thomas, the Apostle in the Country of Indians(ATh 108-113)," J. N. Bremmer, ed., *The Apocryphal Acts of Thomas* (Louvain: Peeters, 2001), 101-114(101).

30) Bremmer, "The Acts of Thomas: Plae, Date, Women," 75. 브레머는 진주의 찬가가 도마행전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원래 따로 있었고 늦어도 3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31) Patrick J. Hartin, "The Search for the true self in the Gospel of Thomas, the Book of Thomas and the Hymn of the Pearl", *HTS* 55:4 (1999), 1001-1021(1015).

32) H.J. Klauck, *The Apocryphal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TX: Waco, 2008), 148은 진주의 찬가에 나오는 왕자가 마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Klijn, *Acts of Thomas*, 193은 왕자가 마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한다.

33) 송혜경, 『신약외경 하권』, 208.

34) 시리아어 사본에는 108장 시작 부분에 "인도인들의 나라에 있을 때 유다 도마 사도의 *madrasha*"라는 제목이 있고 찬가 끝에는 "감옥에 있을 때 부른 유다 도마의 찬가의 끝"이라는 간기(colophon)가 있다. 헬라이어 사본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line 1-15: 내가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보석으로 나를 꾸며서 옷을 입힌 후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진주를 가져오라고 내보내시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성하면 새 옷을 입고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line 16-35: 내가 두 안내자와 함께 이집트에 가다. 이집트에서 나는 동쪽에서 온 내 친척을 만나고 그에게 이집트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해준다. 나는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인들과 같은 복장을 했으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집트에 왔는지도 잊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깊은 잠에 빠지다.

line 36-52: 내 모습에 부모님이 괴로워하며 내게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라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내게 날아오다.

line 53-71: 편지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다. 나는 용을 물리치고 진주를 빼앗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왕궁을 향해 돌아가다.

line 72-105: 왕궁으로 돌아간 나는 나와 똑같이 생긴 옷을 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다. 옷을 입은 나는 평화와 경외의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진주를 바치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 틈에 들어가서 찬미가를 부른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진주의 찬가는 많은 상징적 의미들로 가득 찬 알레고리화 된 작품이다. 이 찬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큰 틀에서 이 작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찬가는 왕자인 내가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 가서 진주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내려갔다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왔는지 잊고 있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정신을 차린 후에 임무를 완성하여 성공적으로 부모님께 돌아간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이 찬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답들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마행전 주석가들은

진주는 무엇이고 왕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한다.³⁵⁾ 그러나 이 찬가에서 진주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 도리어 옷(rob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왕자는 진주를 찾아오라는 숙제를 받지만,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주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진주를 성공적으로 찾았는가,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새 옷을 입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노래가 참된 자아를 찾는 영혼의 여행 이야기로 이해한다.³⁶⁾ 이렇게 볼 때 왕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찬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찬가가 어디에서 그 모티브를 차용해왔는지 각각 달리 볼 수 있다. 드라이버스를 비롯한 도마행전 주석가들은 이 노래의 모티브를 탕자의 비유 부분(눅 15:11-24)과 진주의 비유(마 13:45-46)에서 찾는다.³⁷⁾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진주의 찬가와와는 달리 주인공이³⁸⁾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환영을 받고 상속자의 자격을 회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각각 있다. 진주의 비유가 이 찬가와 겹쳐지는 부분은 값어치 있는 소중한 것,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중첩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단순한 모티브 제공만 할 뿐이다.

이 외에도 이 찬가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관점도 있다. 예를 들면 드라이버스는 이 이야기의 모티브를 아담의 타락에서 발견한다.

35) A. F. J. Klijn, "The So-called Hymn of the Pearl," *Vigiliae Christianae* 4:3 (1960), 154-164(156).

36) Klijn, "Hymn of the Pearl", 154-164; Luttkhuizen, "The Hymn of Jude Thomas," 112; V. Buch, "A Commentary on the Syriac Hymn of the Soul," *JTS* 19 (1918), 145-161(159); Zachary F. Lansdowne, "The Hymn of the Pearl", *Esoteric Quarterly* 4:3 (2008), 21-36; Patrick J. Hartin, "Search for the true self," 1015.

37) Drijvers, "The Acts of Thomas," 331; Klijn, *Acts of Thomas*, 151.

38)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에 대해서는 Jayhoon Yang, "Oh, Father! What a 'Fool for Love' Thou Art!," *Biblical Reception* 1 (2012), 135-154를 보라.

즉,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의 부모인 하나님과 성령이 그를 낙원에서 추방하고,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빠진다. 따라서 인간은 복음을 통해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에 있는 제 2의 자아는 그리스도로, 이집트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그리고 편지는 예수의 복음으로 상징된다는 것이다.³⁹⁾

부분적으로 본다면 왕자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편지라는 별도의 훈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아브람의 이집트 거주 모티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창 12:10-13:2). 이집트는 아브람이 거주할 곳이 아니었고(창 12:6-7), 아브람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스스로를 속인다(창 12:12-13).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훈계를 통해 아브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창 12:17-13:1), 그는 큰 부자가 되는 결말을 얻는다(창 13:2). 이러한 '잘못된 여행' 모티브는 진주의 찬가에서 비슷하게 발견된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창 12:12-13)은 진주의 찬가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line 29-30).

한편, 이 찬가를 인류의 구속이라는 틀과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왕자가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보른캄의 경우도 마행전을 영지주의적 문서로 바라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왕자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영혼을 인도해내는 구세주로 해석이 된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진주의 찬가를 바라보면 구세주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가 도리어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에 취해서 함께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루터후이젠이 잘 지적하듯이 "구원받는 구원자"(Salvator

39) Drijvers, "The Acts of Thomas," 331. 인간 타락과 실낙원 모티브에 대해 Luttikhuisen, "The Hymn of Jude Thomas," 109과 Klijn, "The So-called Hymn of the pearl," 160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40) G. Bornkamm, "Acts of Thomas," E. Hennecke, ed., *New Testament Apocrypha*, vol. 2 (Philadelphia: WJKP, 1965), 425-531.

Salvandus)라는 모순에 빠진다.⁴¹⁾

그렇다면 진주의 찬가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알레고리화되어서 표현되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주의 찬가와 도마행전의 관계 설정부터 전제해야 한다. 이 두 개의 문서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볼 경우, 진주의 찬가에 대한 알레고리화를 알아내기는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찬가가 도마행전이라는 문서 속으로 들어갔다는, 혹은 그 반대로 이 문서에 도마행전이 덧붙여졌다는 등 어떤 식으로든 이 두 문서가 합쳐져서 모종의 관계를 맺고 한 문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이 두 문서의 이데올로기적 상호 일치(혹은 암묵적 동의나 합의)를 말해준다. 따라서 진주의 찬가를 볼 때 이것을 수용한(만일 진주의 찬가가 도마행전보다 앞섰다고 할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도마행전의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마행전이 추구하는 세계관에 대하여 보른감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영지주의적 배경을 주장했었으나, 이러한 시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영지주의적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원론, 가현설적 입장 등을 들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도마행전은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마행전에는 악한 창조주 데미우르고스를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인류,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인류 등 정경 성경에서 지향하는 신학의 틀을 공유하고 있다(32장).

도마행전이 지향하는 기독교론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포함하는 정통 기독교 신학과 같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구원자이다(10장). 그에게는 신성이 있고(10장), 그는 높은 곳의 아버지이며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님이고 심판자이다(143장).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분이시며(10장),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신 분이다(80장. cf. 요 1:1). 그는 물 위를 걷는 신적 존재이며(47장),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구원

41) Luttikhuisen, "The Hymn of Jude thomas," 104.

자이다(48장).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는 참 인간으로 고백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인성'을 가진 분이요(80장). 그는 성육신하신 참 인간으로서(72장) 인간으로서 식사도 하고 여행에서 피곤을 느끼는 분이요(47장),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참 인간이자 고난을 직접 당하신 사람이다(143장). 따라서 도마행전은 영지주의적 신학을 지향하기보다는 정통 기독교 신학과 같은 맥을 취하고 있다.

도마행전이 지향하는 세계관에서 독특한 것은 금욕주의적 세계관이다. 따라서 도마행전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미련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물질관과 결혼관에 특히 잘 나타난다. 제 2막 군다포로스 왕의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금욕적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니며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재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에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도마행전의 결혼관에는 성적 순결에 대한 강한 집착이 나타난다. 도마는 가는 곳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깨뜨리며, 성적인 관계를 부정할 것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성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도마행전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개입한다. 예를 들면, 도마는 열 므나를 남긴 종에 대한 비유(눅 19:12-27)를 언급하면서 열 므나를 남긴 종처럼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로서 자기 스스로가 금욕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성실히 잘 가르쳤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도마행전은 누가복음의 므나를 금욕으로 해석한 것이다(146장). 또한 마태복음의 천국잔치 비유를 언급하면서(마 22:11-12. cf. 계 19:8) 그 의복을 순결한 삶으로 해석한다(146장). 도마행전은 공중에 나는 새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마 6:26-34)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 물질에 대해 미련도 두지 말고 걱정도 할 필요 없다는 금욕적

세계관을 말한다(28, 33장)

도마행전은 물질이라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며(117장) 부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악한 것이라고 본다(66, 83장). 도마행전은 자비로운 자에 대한 약속(마 7:7)을 부(富)라는 것과 연결해서 부요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66장). 따라서 예수를 따라나서는 제자도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마 10:29 par.)을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금욕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가르침인 것인 양 해석한다(61장).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에서의 팔죽 일화를 두고(창 25:29-34) 에서가 망한 것은 물질적인 탐욕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84장). 이상과 같이 도마행전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성경의 본문을 자신의 이러한 세계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인용하며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도마행전의 또 다른 세계관인 성에 대한 부정적 세계관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도마행전은 간음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84장), “간음은 하나님 곁에서는 다른 악행보다 훨씬 무서운 죄악입니다.”(58장)라고 말한다. 도리어 “순결은 가장 첫째 되는 선”이며(139장), “순결은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고, “순결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선의 모태이다.”(85장)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도마는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파탄으로 이끌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깨뜨린다. 위에서 간략히 요약한 도마행전의 개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도마행전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도마행전은 정경 성경의 구절들을 이런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여 해석한다. 예를 들면, “순결은 그리스도의 궁전”이고 “절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이러한 순결한 안식으로 해석한다(86장).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산상수훈의 구절(마 5:8)을 성적 순결이라는

것으로 해석한다(94장). 자식을 갖는 것은 스스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12장). 따라서 성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101장).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구원을 이룬다는 세계관은 진주의 찬가 밑바탕에 기초로 깔려있다. 진주의 찬가에서 나(왕자)는 진주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다. 내가 내려간 이집트는 나와는 달라서 내가 이방인의 모습을 한 것이 쉽게 드러날 정도로(line 23) 이질적인 장소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경계의 대상이다(line 28). 이집트인들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파멸적이고 악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속임수로써 내게 접근하여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다(line 32-35). 그들은 매우 교활하여 내가 비록 경계를 했지만(line 28-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교묘하게 알아내어 결국 나를 넘어뜨린다(line 31). 이집트인들의 땅에서 먹는 음식은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내가 맡은 과제를 잊게 하고 나 자신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준 음식이다(line 32, 34-35).

진주의 찬가에서는 도마행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질감이 이집트로 알레고리화되어 있다. 도마행전에서는 세상적인 것 특히 물질이나 성적인 것을 맛보고 그것에 취하면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파멸되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그것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속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사탄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탐욕에 빠지게 하여 파멸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다(32장). 따라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거나 그런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6막)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된다(7, 8막). 이러한 도마행전의 세계관은 진주의 찬가에서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내가 경험하는 현상과 평행을 이룬다.

도마행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그러한 세상적인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이다. 사도 도마가, 때로는 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러한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

당신께서는 소멸해가는 저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어 저에게 저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이전의 제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마행전 15장)⁴²⁾

도마행전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는 진주의 찬가에 있어서도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도마행전에서 도마나 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있다면 진주의 찬가에는 부모님이 보내신 편지가 있다. 그리고 사도나 예수께서 사람들을 깨우쳐 참된 자아를 깨닫게 하시듯이 진주의 찬가에서 편지는 나로 하여금 참된 자아를 깨우쳐서 결국 온전한 내 모습을 찾도록 해준다. 진주의 찬가에서는 온전한 내 모습, 참된 자아의 회복은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서 옷을 입었을 때에 실현된다.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비추듯 **나와** 똑같은 내 옷을 보고는 그 **옷**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네. 그리고 나는 깨닫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보았다네. 우리(나와 옷)는 같은 데서 나왔지만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네. (line 76-78)⁴³⁾

진주의 찬가를 도마행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읽는다면 진주의 찬가에서 알레고리화한 것들의 윤곽이 이처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42) 송혜경, 『신약외경 하권』, 651.

43) Ibid., 709.

왕자로 표현되는 나는 누구이며, 이집트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즉,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잠에서 깨어나 참된 자아를 찾아 다시금 나서게 되는지 드러난다. 특히 도마행전이 지향하는 세계관의 틀에서 보았을 때 진주의 찬가에서 왕자로 표현되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레고리화 되었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통 기독교의 신학적 틀에서 도마행전을 볼 때 진주의 찬가 헬라이어 사본과 시리아어 사본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의 흔적이 더 잘 드러난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마행전이 영지주의적인 것보다 정통 기독교적 세계관을 더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진주의 찬가 헬라이어 사본과 시리아어 사본에 이러한 신학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영향의 흔적이 발견된다. 광문석은 시리아어 사본이 반-마르키온적, 정통 기독교적 세계관을, 헬라이어 사본이 영지주의적, 마르키온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논증한다. 예를 들어, 뱀이 도마 사도에게 인류의 타락을 말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6:2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한 부분(32장)을 언급하는데, 마르키온은 이들을 ‘타락한 천사로 이해한다. 도마행전 헬라이어 사본에서는 이 부분을 천사들이 타락하여 욕정에 사로잡혀 인간들과 결혼한 것으로 말하는데, 시리아어 사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적고 있다. 광문석은 이것이 도마행전의 시리아어 사본과 헬라이어 사본에 나타난 마르키온-반마르키온 신학적 갈등의 흔적으로 본다.⁴⁴⁾

이러한 신학적 이데올로기의 개입은 진주의 찬가 헬라이어 사본과 시리아어 사본 본문 내용의 차이에서도 발견된다. 진주의 찬가 line 47에서 헬라이어 사본은 “너의 이름은 생명의 책이라 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나(왕자)를 생명의 책이라 부른다. 그러나 시리아어 사본은 “네 이름은 생명의 책에서 불려진다.”로 말함으로써 내가 생명의 책이라는

44) 광문석, 『도마행전』 그리스어본과 시리아어본 비교 연구 -마르키온 사상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41 (2010), 159-190.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존재로 그려놓는다. 이로써 시리아어 사본은 이 땅(이집트)에 내려와서 깨달음을 주고 가는 영지적 구원자로서 왕자의 이미지를 회피한다.

이러한 특징은 편지의 정체에 대한 헬라이어 사본과 시리아어 사본의 차이에서도 발견된다. 헬라이어 사본은 시리아어 사본과 달리 line 51-52를 생략하고 있는데, 시리아어 사본은 “51. 그것(편지)은 독수리, 새들의 임금의 형상으로 날아왔다네. 52. 그것은 날아다니다 내 곁에 내려와 말씀이 되었네.”⁴⁵⁾라는 구절을 포함한다(cf. 요 1:14). 또한 이 편지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고 나는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편지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line 53). 그리고 “길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존재를 단순히 “그것”이라고 하여서 모호한 정체로 만드는 헬라이어 사본과 달리 시리아어 사본은 “편지”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편지를 확실하게 의인화시키고 있다(line 64). 시리아어 사본은 편지를 이렇게 편지를 왕자인 나와 분명하게 분리시키고 성육신한 말씀 예수를 암시하도록 연결시킴으로써 마르키온-영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정통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도마행전과 도마행전에 나오는 진주의 찬가를 통해서 (신학적)이데올로기와 그것이 그 문서들을 알레고리화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는 모든 텍스트에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텍스트의 생산(저술)이나 소비(독서, 해석, 비평)의 과정에 모두 개입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데올로기 혹은 어떤 세계관이나 신학은 종종 알레고리화라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텍스

45) 송혜경, 『신약외경 하권』, 706-707.

트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반영되고,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텍스트 가운데는 종종 알레고리 즉, 알레고리적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알레고리화라는 작업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특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알레고리적 텍스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보다 노골적으로(종종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무시한 채 “A는 B를 상징하고, C는 D를 가리킨다.”는 단언적 방식으로) 담아내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알레고리화 하는 지 살펴보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 도마행전과 진주의 찬가를 서로 연결해서 읽어 보았다. 이데올로기 혹은 세계관(혹은 신학)의 연결성을 보기 위해 도마행전과 진주의 찬가의 간략한 내용과 중요한 이데올로기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것을 통해 진주의 찬가가 도마행전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전제로 한 후, 진주의 찬가에서 알레고리화 된 것들을 이러한 공유된 세계관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해 진주의 찬가가 도마행전과 마찬가지로 정통 기독교적 이데올로기의 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르키온적·영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진주의 찬가 헬라이어 사본과 반마르키온적·정통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시리아어 사본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진주의 찬가 몇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이데올로기와 알레고리화 작업(생산 혹은 소비의 작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도 살펴보았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많은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활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그 가운데는 텍스트 생산과 소비에 필수적 요소인 이데올로기와 역동적 관계가 잘 드러난다. 과거 교부들의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에 대한, 혹은 현대 목회 강단에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에 대한 심한 거부 반응이 합리적·논리적 성경 해석을 주창하는 성서학의 물결을 타고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레고리를 다시 살펴보면 알레고리적 혹은 알레고리화라는 것이 인간의, 특히 포스트모던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벗어날 수 없는 업보이자 운명일 수 있다는 점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이데올로기와 알레고리화 작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마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자부하며 알레고리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경기를 일으키는 것 또한 자기 착각 내지는 자기무오설(自己無誤設)적 교만은 아닐까?

<주요어>

알레고리, 진주의 찬가, 도마행전, 신약외경, 이데올로기

<Key Words>

Allegory, Hymn of the Pearl, Acts of Thomas, New Testament Apocrypha, Ideology

* 등록일 2014년 8월 29일, 수정일 2014년 8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9월 2일

<초록>

신약외경과 알레고리

-도마행전 '진주의 찬가'의 알레고리화와 이데올로기 고찰-

양재훈

(협성대학교 교수)

이 글은 신약 외경 도마행전 가운데 나오는 진주의 찬가를 가지고 알레고리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먼저 모든 광의적 개념의 텍스트가 생산되거나 소비될 때 그 과정에 항상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개입한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해석한 결과물이나 과정을 알레고리, 알레고리화로 정의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마행전에 나오는 진주의 찬가로 풀어나간다. 도마행전과 진주의 찬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후에 이 두 문서를 같은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바라본다. 그리고 도마행전의 이데올로기가 진주의 찬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서로 상응하는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도마행전이 지향하는 금욕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진주의 찬가 알레고리적 생산/해석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데올로기와 알레고리화 과정에서 진주의 찬가 헬라이어 사본과 시리아어 사본이 각각 마르키온-영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반마르키온 정통 기독교적 이데올로기가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알레고리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설명한다.

<Abstract>

Allegory and the New Testament Apocrypha:

An Examination of Allegory and Ideology in the Hymn of the Pearl of the Acts of Thomas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the allegory by dealing with the Hymn of the Pearl in the Acts of Thomas, one of the five major acts of apostles in the New Testament Apocrypha. It begins with a presupposition that ideology is always involved in the ac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all the text in a large sense. It understands the allegory or to allegorize as a candid method or a result of expressing one's ideology. It illuminates how ideology work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r consumption of a text by observing the Hymn of the Pearl. The reading of the Acts of Thomas and the Hymn of the Pearl leads us to that they share the same ideological stance. It continues to examine how the ideologies of the Acts of Thomas and the Hymn of the Pearl correspond with each other. It argues the ascetic ideology that the Acts of Thomas pursues is also working in the allegorical production or consumption of the Hymn of the Pearl. Further, i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egory and ideology by showing that the Marcion/Gnostic ideology and Anti-Marcion/Orthodox Christian ideology are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allegory in the Greek and Syriac version of the Hymn of the Pearl respectively.

참고문헌

- 곽문석, 『『도마행전』 그리스어본과 시리아어본 비교 연구-마르키온 사상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41 (2010), 159-190.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1 (2014), 31-50.
- 송혜경, 『신약외경 하권』, 경기: 한남성서연구소, 2011.
- 스타인, 로버트, 『예수님의 비유-해석원리와 적용』,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 양재훈, 『소통과 융합 시대의 성서학과 문화』, 「Canon&Culture」 13 (2013), 63-102.
- 예레미아스, 요아킴, 『예수의 비유』, 허 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 임진수,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해석의 두 관점(막 12:1-12) -알레고리와 사회적 상황』, 「Canon&Culture」 8:1 (2014), 51-83.
- 조재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성경 주해 저술들과 알레고리의 성격』, 「Canon&Culture」 8:1 (2014), 85-108.
- 짚람푸니, 에카테리니,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 문자적 해석에서 영적 해석으로』, 「Canon&Culture」 8:1 (2014), 5-30.
- Bornkamm, G., "Acts of Thomas," E. Hennecke ed., *New Testament Apocrypha*, vol. 2, Philadelphia: WJKP, 1965, 425-531.
- Bremmer, N. J., "The Acts of Thomas: Place, Date, Women," J.N. Bremmer, ed., *The Apocryphal Acts of Thomas*, Louvain: Peeters, 2001, 74-90.
- Buch, V., "A Commentary on the Syriac Hymn of the Soul," *JTS* 19 (1918), 145-161.
- Bundy, D., "The Pseudo-Ephremian Commentary on Third Corinthians: A Study in Exegesis and Anti-Bardaisanite Polemic," G. J. Reinink and A.C. Klugkist, eds., *After Bardaisan: Studies on Continuity and Change in Syriac Christianity in Honour of Professor Han J.W. Drijvers*, Louvain: Peeters, 1999, 51-63.
- Dodd, C. H., *The Parables of the Kingdom*, London: Collins, 1971.

- Donahue, S. J., *The Gospel in Parable*, MN: Fortress Press, 1988.
- Drijvers, H. J. W., "The Acts of Thomas," W. Schneemelcher ed., *New Testament Apocrypha* Vol. 2, R. McL. Wilson tr.문., KY: WJKP, 1992, 322-411.
- Eagleton, T., *Id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NY: Verso, 1991.
- Hartin, Patrick J., "The Search for the true self in the Gospel of Thomas, the Book of Thomas and the Hymn of the Pearl", *HTS* 55:4 (1999), 1001-1021.
- Hirsch, E. D.,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7.
- Julicher, A., *Die Gleichnisreden Jes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 Klauck, H.J. *The Apocryphal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TX: Waco, 2008.
- Klijn, A. F. J., *The Acts of Thomas: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y*, Leiden: Brill, 2003.
- Klijn, A. F. J., "The So-called Hymn of the Pearl," *Vigiliae Christianae* 4:3 (1960), 154-164.
- Lansdowne, Zachary F., "The Hymn of the Pearl", *Esoteric Quarterly* 4:3 (2008), 21-36.
- Luttikhuisen, G. P., "The Hymn of Jude Thomas, the Apostle in the Country of Indians(ATh 108-113)," J.N. Bremmer, ed., *The Apocryphal Acts of Thomas*, Louvain: Peeters, 2001, 101-114.
- Rice, Helen Steiner, "How Great the Yield from a Fertile Field," V. Ruelhmann ed., *The Poems and Prayers of Helen Steiner Rice*, Grand Rapids: Baker, 2003.
- Sider, J. W., *Interpreting the Parables: A Hermeneutical Guide to Their Meaning*, Zondervan, 1995.
- Snodgrass, K. R., *Stories with Intent –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 Wimsatt, W. K., *Verbal Icon*, KY: Univ. of Kentucky Press, 1954.
- Yang, Jayhoon, "Oh, Father! What a 'Fool for Love' Thou Art!," *Biblical Reception* 1 (2012), 135-154.